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기념하는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아체로 1년 6개월간 평화복무를 위해 떠나는 김원중 청년을 위한 후원찾집이 다음 주일(22일) 점심시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8월 9일까지 1차 안식일을 보냅니다. 유럽지역의 수도원 기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절전을 생활화합시다.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26-28도입니다. 과도한 에어컨 사용은 자제합시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등은 꼭 소등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는 뽑아둡니다.

창 1:1~2:4a / 시 8
고후 13:11~13 / 마 28:16~20

미정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경원 박경선 김현동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박진숙 추헌영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박진숙 추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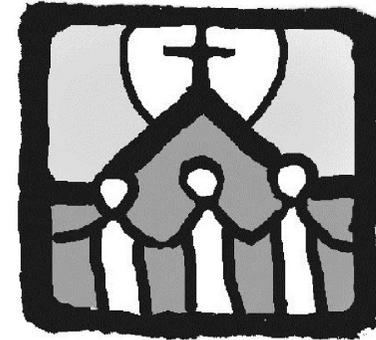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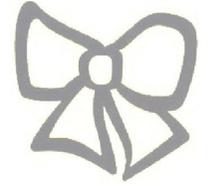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참빛이신 주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참진리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참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낮은 자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주십시오. 국익의 논리를 앞세워 연약한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과 이윤을 강조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현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구명자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신실 김애경 김용길 최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주 김정미 김혜진 김훈동 유경순 박기영
 방극숙 배재경 이수정 성지현 송형운 하미림 오미경 오미숙 오상희
 윤주원 최윤선 은종인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이광용 형인순 이민범
 공재량 이상준 윤지원 이성범 권혁순 이순용 이우상 이계월 이재문
 이재훈 이지훈 이현순 이호원 임호성 장재영 김재영 정영례 정현모
 정현숙 조경자 주은경 차혜심 노미향 한규숙 허준호

감사헌금

김경혜 김 인 김진중 김향자 김현미 김현진 오선영 박대웅 강지영
 이광석 이경희 이선화 이지하 전인섭 진성권 한미영 한성자 주명재
 황현성 이오복 무명14

생일감사헌금

김근중 정옥영 이인웅 오송경 정경례 조순덕

녹색꿈헌금

김흥기 안종일 정현주 윤정덕 구성실 장원호 박성희

백	혜	숙	박	성	희	박	영	희	오	송	경
신	진	식	최	경	미	신	진	식	이	은	옥
장	영	숙	신	영	신	최	종	미	김	진	경
노	순	옥	진	정	숙	문	금	석	안	정	숙
박	홍	재	박	홍	재	조	영	순	박	홍	재
권	미	숙	박	미	영	방	극	숙	정	영	례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이	순	정
곽	권	희	윤	수	진	김	재	광	윤	미	경
안	홍	숙	오	현	정	안	홍	숙	오	현	정
정	영	선	홍	춘	숙	정	영	선	홍	춘	숙
박	혜	경	박	혜	경	최	숙	화	최	영	혜
김	재	흥	오	자	영						
김	재	흥	송	형	운						
이	범	석	이	진	영						
이	범	석	곽	상	준						
신	진	식	윤	성	중						

한 옥타브 위의 사고를

- 박노해

해발 4천 미터 시미엔 산맥 길에
 맨발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간다
 나는 맨몸으로도 숨이 차 느린 걸음인데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나뭇단을 지고
 희박한 공기 속을 나일 강의 물소리처럼
 청아하고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걸어간다

희박한 공기를 뚫고 오르는 자는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만큼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노래해야 한다고
 모두가 숨 막히는 시대에 희망의 걸음이란
 자신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만큼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한 옥타브 위의 사고를 해야 한다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며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을 떨쳐내고 약속을 믿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리노 말테 목사	공동기도 홍순구 권사	김명희 집사 김 극 집사

6	영접위원	방문성 윤성종 송동준 안정숙 김윤정 김진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결과 편

‘결’이 있는 글을 강조하며 결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끄찍할 정도로 ‘결’이 없거나 악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 결에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사람만 가득하다. 자기 말은 호소하고 싶은데 남의 말을 듣는 것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힐링이니 상담이니 하는 사적이고 상업적인 자리로 재빠르게 몰려갔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반응은 꼭 친절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호통치고 야단칠수록 마치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고 관심이며 깨달음을 주는 죽비소리인 듯 여겨진다. 말할 수 있는 결이 사라지자 이처럼 돈 내고 야단맞으러 가는 세상이 되었다.

힐링과 상담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결이 사라진 자리를 편으로 메꾸며 악몽으로 만들어간다. 결을 파괴하고 편을 강요하는 것,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은 파괴되고 편으로 몰아가는 사회.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이야기, 반론을 펴면 이내 곧 누구 편이냐 되묻고 상대를 내친다. 이렇게 ‘편’을 강요하는 언어에는 반성이나 성찰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다. 편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지지 혹은 적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엇을 하더라도 틀리게 된다. 그래서 편 의 언어는 단순하다. 편들어야 하는 자는 일방적으로 말한다. 이때 듣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옳소’뿐이다. ‘아니요’라고 답하면 적으로 지목되어 내쳐진다. ‘옳소’이외의 다른 말은 침묵한다. ... 따라서 편 의 언어는 공격적이고 맹목적인 경우가 많다. 편 의 정치는 끊임없이 적대를 창조하고 그 적대로 사람들을 몰아가며 너는 누구 편이냐고 으박지르며 ‘결’을 파괴한다. 둥글게 모여 앉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참조점(reference)

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고 남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들으면서 성장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에서부터 회사,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벌어지면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y)을 공동으로 지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누구에게 그 책무(accountability)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다. 이렇게 될수록 사람들은 문제가 벌어질 경우 ‘독박’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미루는 기술만 늘어난다. 개인들이 사악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무를 중심에 두는 씨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씨시스템 아래에서는 책임을 홀로 떠맡게 된 사람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 않고 이를 외면해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사람들과의 유대와 교류는 같거나 비슷한 취향의 모임들에서만 활발할 뿐이다. 간혹 등장하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는 ‘그의 취향일 뿐’이라는 말로 무관심한 듯 존중하는 제스처로 해결한다. 이로써 자신의 고통에서 자신의 주변 혹은 사회의 모순이든 고통이든 무엇인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이야기를 나누며 ‘결’을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서로 참조하며 배우는 ‘결 의 언어’가 사라질수록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공적인 이슈로 바꾸는 역량, 즉 시민의 정치적 역량 역시 쇠퇴한다. 또한 낮설고 다른 것과의 부딪침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성장 역시 불가능해지게 된다. ...

물론 모든 결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 국가는 악몽이 되고, 사회는 몽상이 되고, 개인은 착각이 되어버린 이 폐허에서 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여전히 ‘사회 이후의 사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사회는 아주 다른 사회이겠지만 말이다. 이들은 이전의 사회운동에서 우리가 주로 목격해온 것처럼 우리의 위에서 편을 드는 말을 건네는 이들이 아니다. 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결을 만들어간다. ...